

주민들 “교육·교통 인프라 열악”... 김민석 “중앙 차원 주목”

(민주 수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나주시 빛가람동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2일 오후 빛가람동 동신대 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율 제고'를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민석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정준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6·3 대선 현장] 더불어민주당 경청 간담회-나주 빛가람동

주민 40여명 참여... 초·중 과밀학급, 특목고 부재 등 해결 요청 KTX 노선 부족·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상가 공실 애로 호소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니 주민이 살기까지 책임져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나주 빛가람동에서 개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교육, 교통, 상가 공실 문제 등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민의 애로사항이 터져 나왔다. 빛가람동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남 전체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투표율 79.61%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41% 득표율을 기록, 전남 평균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11.44%), 나주시 평균(11.82%)을 상회했던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전남 내 타 읍·면·동에 견줘 외지인이 많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빛가람동 주민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 의원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준호(북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도 뜨거웠다.

빛가람동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교육에 집중됐다.

혁신도시로 이사한 지 10년 차로 고교 1년, 중학교 2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한 주민은 “아이들이 학교다운 학교 생활을 하길 바라지만, 초등학교는 12반, 중학교는 11반으로 과밀 상태”라며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 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소년 특성화 지원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건 교육이다. 빛가람동 부모들은 모두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교육문제를 얘기한다”며 “명문중·고가 없어 광주로 이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혁신도시가 지방에 있다보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 목적고를 만들 수도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엔 지원을 해주더니 해가 지날 수록 지원이 사라져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도시권 지방이건 과밀보다 학생이 줄어가는 게 일반 추세이지만, 빛가람동의 과밀은 특수한 예”라며 “교육당국의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관심을 두고 보겠다”고 답했다.

교통 문제도 지적됐다. 광주·전남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밀집한 빛가람동은 직원들의 세종, 서울 출장이 잦다. 하지만,

열차가 부족할 뿐더러 나주역을 종착지로 하는 열차도 부족한 실정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이을출 의장은 “KTX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 출장이 잦지만 정차 종착역은 광주송정역인 열차가 많다. 나주역으로 종착역을 확대하면 근무 여건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광주역의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해결해보려 했지만, 종착역 연장 문제는 노선배치를 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코레일에 확인해서 원인 파악을 해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이밖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빛가람 혁신도시로 집중할 것과 심각한 빛가람동 상가 공실 문제, 주민자치회 연임제한 폐지 등도 건의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정부가 바뀌면서 버림받은 아이가 된 혁신도시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리를 마련했다”며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면서 출대받은 도시였지만 다시 민주당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빛가람혁신도시를 광주·전남에 국한되지 않는 고 에너지 신사업의 거점으로 키워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나주=김민석 기자 mskim@

여의도 브리핑

“지역언론은 공공 인프라” 지원법 개정 추진

박수현 민주당 의원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 때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정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지방정기 라운지

“광주시, 금타 화재 피해·건강 조사 적극 나서야”

이귀순 민주당 광주시의원



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진화됐지만 시민들의 피해 신고는 지난 21일까지 총 4147건에 달한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에만 172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의원은 “행정이 피해 확인에 소극적이면 기업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광주시가 직접 나서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모든 시민의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시는 광산구와 함께 하고 있다”면서 “지역 재건과 주민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회복에 광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귀순(광산 4선거구) 광주시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 광주시가 피해 접수와 건강 피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자치구인 광산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발생 직후 광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접수가 시작됐지만, 실제 피해는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시민들은 호흡기 질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

민주, 사법정의 실현위 출범 위원장에 백태웅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 존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을 남용하는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졌

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시인 박노해씨 등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백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 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이 부분에서 향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백령·대청·소청도 일대 세계지질공원 지정 불발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됐다. 인천시는 북한이 지난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제주도(2010년), 청송(2017년), 무등산권(2018년), 한탄강(2020년), 전북 서해안(2023년)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회원국 이의 신청으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스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